

# 박영진가의 19세기 복식부기 장부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

허성관(주저자)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 전 행정자치부장관  
(skhuh2003@hanmail.net)

등록문화재 587호인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박영진가 장부)’는 Jun, Lewis and Huh(2013)와 허성관(2015)에 의해서 복식부기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개성상인의사계송도치부 장부가 복식부기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종결되었다. 본 연구는 허성관(2015)이 분석한 이 장부의 1894년 기록부터 완전한 장부가 존재하는 1899 회계연도까지 회계처리방법의 진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개의 기본 형식과 회계처리 절차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회계처리에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칙이 준수된 복식부기였다. 그러나 잔액을 이월하고 계정을 폐쇄하는 분개에 현금의 입출금이 없는데도 상(上)과 하(下)로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채무연장 거래도 명시적으로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액이 큰 중요한 계정에만 이 분개를 실시하여 일종의 점검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 계정의 잔액을 오늘날의 대손처럼 처리했다. 일반관리비로 전도한 금액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할 때 기업실체의 비용과 소비자 지분의 인출을 구분하는 형태로 처리방법이 진화되었다. 회계집작조는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1899 회계연도에 삼포경영과 금융업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정착되었다. 상품 매매업의 이익은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독립계정으로 보고되었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서양부기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박영진가 장부는 우리 고유의 복식부기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박영진가 장부는 오늘날의 재무제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verifiable) 복식부기이다.

1897 회계연도부터 주업종이 된 삼포(蔘圃) 경영에서는 삼포가 처분될 때까지 지출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삼포 경영 기간 동안 투자와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을 계산하여 가산하였다. 종삼을 내부의 다른 삼포로 이식하는 경우에는 사내 이전가격으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사내이전가격에 관한 세계 최초의 증거이다. 삼포 경영은 합작 사업이었다. 삼포에서 실현된 이익은 사업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이러한 경영관행은 자본, 기술, 경영 전문성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이다. 우리의 경제·경영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전통회계, 사계송도치부법,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

## 1. 서론

개성부기 또는 사계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으로 불리는 한국 전통회계가 복식부기인지에 관한 연구는 현병주(1916)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원리에 관한 연구와, 실제 장부를 이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

다. 원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회계가 복식부기로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실제 장부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완전한 장부를 분석한 연구가 없어 복식부기임을 증명하지 못했다(허성관 2014).

그런데 개성상인 후예인 박영진가 회계장부가 2005년에 발견되었다.<sup>1)</sup> 이 장부는 1887년 8월 15일부터 1912년 4월 15일까지의 회계기록이다. 이 중에

최초투고일: 2016. 1. 5      게재확정일: 2016. 2. 21

\* 본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 문화재청이 이 장부를 2014년 2월 등록문화재 587호로 지정하였다. 이 장부는 한자 초서(草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초서 전문가가 아니면 읽기 어렵다. 따라서 초서를 정자인 해서(楷書)로 바꾸어야 한자를 이해하는 일반인들도 이 장부를 읽을 수 있다. 초서를 해서로 바꾸는 것이 탈초(脫草)이다.

서 분개장(journal),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및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여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은 1893년부터 1899년까지 7 회계연도<sup>2)</sup>이다. 이 장부를 분석하여 Jun et al (2013)과 허성관(2015)은 한국 전통회계인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임을 명백하게 밝혔다.<sup>3)</sup> 박영진가 장부와 위의 두 연구는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한국 전통회계가 복식부기인지 여부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Jun et al(2013)<sup>4)</sup>은 박영진가 장부의 구성, 분개 형식, 전기의 흐름 및 사용된 회계용어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복식부기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회계에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박영진가 장부는 중국과 일본 장부에서 사용된 한자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중국과 일본에는 복식부기가 있었다는 확실한 연구보고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개송도치부법인 박영진가 장부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 고유의 복식부기 장부이다.

허성관(2015)은 박영진가 장부의 1894년 9월 15일에 종료된 7차 회계연도의 거래 595건의 분개, 전기 및 결산 과정과 결과가 현대회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서양의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전이다(허성관 2014). 거래는 발생순서대로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정연하게 분개되었으며 분개는 원장에 전기되어 현대회계와 기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대차관계가 청산된 금융거래의 전기를 생략하여 오늘날 회계의 총액주의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계정과목의 설정에 있어서는 통제계정(control account)인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차입금, 대여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계정 등을 설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인명(personal name) 계정에 직접 분개하여 전기하였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도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분개하지 않고 원장의 해당 인명계정에서 이자를 계산하여 잔액에 합산하는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박영진가의 장부에서는 외상매출금 등 이들 통제계정의 합계는 장부에서 직접 알 수 없고 별도 합산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박영진가 장부의 결산에서는 상품매매이익과 금융업의 이익을 구분하였고, 금융업의 이익을 다시 원격지와 현지 금융거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sup>5)</sup> 상품매매이익과 원격지 금융거래이익은 대차대조표인 주회계(周會計)에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보고하고 현지 금융거래이익만이 오늘날의 당기순이익처럼 처리하여 기말 이익잉여금을 계산하여<sup>6)</sup> 주회계에 반영한

2) 박영진가 장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6일부터 다음해 9월 15일까지이다.  
 3) 현병주(1916)에 의하면 한양의 상인들도 개성상인과 원라가 같은 복식부기를 사용했다.  
 4) Jun et al(2013)은 북한사회과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장부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 장부는 결락이 있지만 1756년부터 1937년까지의 총계정원장인 외상장책(外上帳冊)과 타급장책(他給帳冊)이다. 분개장인 일기(日記)와 결산 재무제표인 주회계책(周會計冊)은 이 장부에 없다.  
 5) 포목매매이익은 백목조(白木條) 계정으로, 소금매매이익은 염좌여(鹽座餘) 계정으로, 원격지 금융거래이익은 경환태가(京換駄價) 계정으로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각각 보고하였다.  
 6) 기말이익잉여금을 계산한 문서가 회계집작초(會計集積抄)인데 이는 오늘날의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통합한 것과 유사하다. 박영진가의 재무제표는 주회계와 회계집작초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진가 장부는 개인기업의 장부이다. 1894회계연도 회계집작초에는 현금금융거래 순이익 11,933.22량(兩)에서 전담 매입액 6,700량을 차감한 5,233.22량이 기말이익잉여금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매입한 전담을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소유지지분을 감소시킨 것은 오늘날 개인기업 회계의 소유자 인출(withdrawal)에 해당한다.

결과 주회계의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였다. 박영진가의 1894년 장부는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계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판매비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일반관리비는 가지급금과 유사하게 전도(payment in advance)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였다. 일반관리비로 인식된 금액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소유자 지분 계정에서 차감하였다.

결산과정에서 미지급이자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수이자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accrual accounting)를 박영진가 장부는 채택하였다. 특히, 자기자본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계산하여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것은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capital)을 명시적으로 회계에서 인식한 세계 최초이며 유일한 증거이다.

이상과 같은 박영진가 장부의 회계처리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 GAAP)'이 엄정하게 정립되어 있는 현대회계와는 차이가 있으나 복식부기의 기본원리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표현 형식의 차이이며 오히려 사개송도치부법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영진가 장부는 계정과목의 숫자들만 다시 정리하여 배열하면 오늘날 회계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를 작성할 수 있는 복식부기이다.<sup>7)</sup>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로서 고려시대(서기 918-1392)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업계의 전승과 윤근호(1984)의 가설에 박영진가의 장부가 실증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18세기 중반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발명된 복식부기가 한국에서 사용되어온 증거를 Jun et al(2013)과 허성관(2015)이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회계처리 방법이 허성관(2015)이 분석한 1894 회계연도 이후부터 1899 회계연도까지 6년 동안에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1899 회계연도는 분개장, 총계정원장 및 주회계책을 포함한 완전한 장부가 남아 있는 마지막 연도이며 서양식 복식부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이전이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회계순환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여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를 식별한다.

실증적 회계이론(positive accounting theory)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회계처리 방법은 업종, 기업규모, 거래 빈도, 경영관리의 필요성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박영진가 사업의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대상 기간 중에는 1894년 동학농민항쟁과 갑오개혁 및 청일전쟁,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1896년 아관파천 등 조선왕조가 국권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암울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회계처리 방법 진화과정을 탐구하는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허성관(2015)이 1894 회계연도만을 분석하여 복식부기임을 밝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후 기간들도 분석함으로써 복식부기인 사개송도치부법이 특정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윤근호(1984)에 의하면 서양식 복식부기를 우리나라에서 교육하기 시작한 시기가 1899년 무렵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박영진가 장부의 회계처리방법의 진화에 서양식 복

7) 허성관(2015)은 박영진가 장부의 1894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오늘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금액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두 회계연도에 걸친 3건의 수입이자를 발생기간별로 어떻게 박영진가 장부에서 배분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부기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서양식 복식부기의 영향이 없었다면 본 연구는 사개송도치부법이 우리나라에서 발명되어 발전해온 한국 고유의 회계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셋째, 박영진가 장부를 활용하는 조선 말기 경제사, 개성상인들의 경영관행 및 기업윤리 등에 관한 연구는 장기에 걸친 회계정보의 시계열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회계처리방법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시계열에 일관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연구이다. 넷째,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들의 내용을 해설함으로써 사개송도치부법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 외에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분석 대상기간 6년 동안 박영진가 장부의 영업 내용, 거래 규모, 총자산 규모의 변화 등 회계처리방법의 진화 배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등장에 따른 분개와 분개형식의 변화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계정과목의 설정과 전기 과정 및 원장의 활용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1897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 인삼사업의 경영과 회계를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의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과 손익계산서의 작성 등 결산 과정의 진화를 정리한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및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가능한 분야를 적시한다.

## II. 영업내용과 기업규모의 변화

박영진가 장부의 초기 업종은 금융업과 상품매매업이다. 1894 회계연도에 거래된 상품들은 포목, 소금, 은(銀)이다. 은 거래는 1894년 갑오개혁에서 은본위제로 화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은본위제가 실패함에 따라 1897 회계연도에 들어 은 거래는 중단되었다. 포목 거래는 1895 회계연도까지는 활발하였으나 1896 회계연도부터 미미해졌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 광목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금 거래 역시 1896 회계연도부터는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1896 회계연도에 백삼을 중심으로 인삼 거래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품거래의 매매이익은 상품별로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계산하였다.<sup>8)</sup>

1896 회계연도부터 박영진가는 인삼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박영진가 장부에는 인삼을 재배하는 인삼포(人蔘圃)가 1897년 회계연도 말에 8개에서 1898 회계연도 말에는 12개, 1899 회계연도 말에는 18개로 늘어났다. 인삼포 관련 자산이 1897 회계연도 이후 총자산의 60%를 상회하여 인삼 경작이 핵심 사업이 되었다. 재배 전문가와 자본가가 합작하여 인삼포를 경영하였는데 박영진가는 자금을 제공하고 회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삼포의 원가계산과 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새로운 회계처리 문제가 대두하였다.

8) 박영진가 장부는 상품별 계정과목으로 백목, 소금, 백삼 계정을 설정하였다. 백목계정에는 준목, 단의목, 양목, 저포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소금계정에는 포장단위인 자루(용, 甬)의 크기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백삼계정에는 1근당 편(片)수 별로 구분하였고 수삼과 미삼(尾蔘)도 함께 기록하였다. 각 상품별 계정이 매득(買得)인데 차변에는 매입을, 대변에는 매출을 기록한 후 재고가 소진된 때와 결산기말에 각 세부 품목별로 재고를 식별하여 매매이익을 산출하였다.

〈표 1〉 박영진가 사업의 추이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총자산(량)	118,686	114,394	146,522	271,523	469,283	448,958
총거래(건)	595	156	124	659	994	895
계정수(개)	122	46	63	119	151	139
상품종류	포목 소금 은(銀)	포목 소금 은	포목 소금 은 인삼	포목 소금 인삼 미곡	포목 소금 인삼 미곡	포목 소금 인삼 미곡

1) 연도는 9월 15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임.

2) 총자산은 량(兩) 단위 미만을 반올림한 것임.

박영진가는 1897 회계연도부터 벼농사도 시작하였다. 황해도 연백 지역에 농장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영 형태는 확실하지 않다. 장부상으로는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한 벼 가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농장의 토지가 자산계정에 없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고, 토지 임차료를 지급한 기록도 없다. 벼농사의 누적이익이 1899 회계연도 말에 28,794.36 량에 달했다. 박영진가의 사업은 금융업에서 시작해서 상품매매업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상품매매업은 줄어들고 1898 회계연도부터는 금융과 인삼 재배 및 벼농장 경영으로 재편되었다.

박영진가 장부를 보면 정치 사회의 불안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894년 3월 동학농민항쟁이 시작되고 이어 7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 국가가 위기국면에 직면하였다. 1894년 7월부터 갑오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11월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동학농민항쟁이 진정되고, 1895년 4월 시모노세끼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 당하고 이어 단발령이 내려짐에 따라 의병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기간은 박영진가 장부의 1894, 1895 및 1896 회계연도이다.

〈표 1〉에서 총자산 추이를 보면 1895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1896년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1897년 이후의 증가폭과 비교하면 이 극심한 혼란기 2년 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899 회계연도까지 3년 동안 총자산은 146,522 량에서 448,958 량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총자산과 함께 전체 거래 건수도 1894 회계연도의 595건에서 156건, 124건으로 각각 대폭 감소했다가 1897 회계연도에는 659건으로 늘어났다. 거래처 숫자를 반영하는 계정과목 숫자도 1894 회계연도의 122개에서 46개, 63개로 줄어들었으나 1897 회계연도에는 119개로 회복되었다. 특히, 1898 회계연도에 총자산, 거래 건수 및 계정과목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1898년 3월에 윤달이 들어서 다른 회계연도보다 영업기간이 한 달이 많은 13개월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때문에 경영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박영진가 장부에 나타난 금융거래의 이자율은 별 변동이 없이 안정되어 있었다. 결산 시 지급이자로 인식한 자기자본비용은 1894회계연도부터 1899 회계연도까지 변함없이 연 15%였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에 적용한 이자율도 1895, 1896 회계연도에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장기차입금의 이자율도 자기자본비용과 같은 15%

를 계속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부채와 자본계정을 모은 원장인 급차질(給次秩)의 별비조(別費條) 계정에는 1892년에 20,000 량을 차입한 후 상환과 추가 차입이 없고, 결산 시 매년 15%의 지급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1899 회계연도 말에는 잔액이 53,200 량이 되었다.<sup>9)</sup>

### III. 분개원리와 새로운 거래의 분개

새롭게 시작한 인삼재배 관련 거래는 자산계정인 봉차질(捧次秩)을 모은 외상장책(外上帳冊)에 삼포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분개한 후 지급액은 해당 삼포계정의 차변에, 삼포 처분 금액은 대변에 기록하였다.<sup>10)</sup> 황해도 연백지방의 벼농장의 경우에는 연백조가(延白租價) 라는 계정을 설정하여 관련 비용과 수익을 기록하였는데 농장은 매년 수확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정의 잔액은 이익이다. 이 연백조가 계정은 자본과 부채계정인 급차질(給次秩)의 원장인 타급장책(他給帳冊)에 포함되어 있다.

분석대상 기간 중 박영진가 장부의 분개원리와 정형화된 분개형식은 허성관(2015)의 <표 2>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추가적인 분개를 실시하

였다. 금융의 상환기한이 도래했는데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원장에만 이 사실을 기록해왔으나 1898년부터 이를 분개하여 전기하였다. 예를 들면, 손덕중으로부터 1897년 12월 1일 20,000 량을 1898년 2월 말 기한으로 차입하였으나 3월 말일까지 이자와 원금 10,000량 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0 량에 대해서는 3월 30일에 기한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sup>11)</sup>하여 전기하고 원장에 연장된 채무임을 잉채(仍債)<sup>12)</sup>로 표시하였다.

三月卅日 \_\_\_\_\_ 孫德中還給仍債計文一萬兩 下  
邊一兩式 孫德中入仍債七月晦一萬兩 上

위 첫 분개는 ‘환급...하’ 분개로서 차입금을 갚았다는 분개이고, 둘째 분개는 ‘입.....상’ 분개로서 현금으로 차입한 거래이다. 그러나 실제 현금이 수수된 거래가 아니고 7월말(七月晦)까지 연기된 채무이기 때문에 잉채를 중간에 표기한 것이다. 둘째 줄의 변육량식(邊六兩式)은 연장기간인 4월부터 7월말까지 4개월 동안 100량 당 이자가 6(六)량임을 의미하며 이자율로 환산하면 월 1.25%이다. 상환기일을 4개월 연장하였지만 이자율은 같다. 卅은 30을, 一은 6을 호산(胡算)으로 표기한 것이다.<sup>13)</sup>

오늘날 회계에서 원장을 마감하는 분개는 수익과

9) 별비조(別費條) 계정은 장기차입금이 아니고 동업자의 지분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기록이 없고 소유주인 발곡택(鉢谷宅)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출이 전혀 없고 이익을 배분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지분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박영진가 장부의 급차질(給次秩)에는 이런 성격을 지닌 계정과목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 별비조라는 계정과목 명칭이 거래의 실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이유는 투자나 장기차입의 경우에 자금 공여자의 실명이 알려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유추된다.

10) 사계송도치부법의 원장 형식은 오늘날의 T계정과는 달리 내(內)를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을 좌우로 구분하였다. 박영진가 장부에는 자산계정인 봉차질의 경우 내(內)자의 오른쪽이 차변 왼쪽이 대변이며, 자본과 부채계정인 급차질은 반대이다.

11) 시계송도치부 장부와 박영진가의 장부 분개는 모두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읽기 편의를 위해 가로쓰기로 바꾸어 표시한다.

12) 잉채(仍債)에서 ‘잉’은 ‘하지 않고 전한다’는 뜻으로 이두표기이며 ‘지즈’로 읽는다. 환급(還給)도 이두표기인데 ‘주자로 읽는다.

13)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기 전에는 숫자를 한자와 호산으로 표기하였다. 박영진가의 장부에는 단가와 이자와 및 현금 잔액을 호산으로 표기하였다. 호산에 대해서는 허성관(2014) 참조.

비용계정의 잔액을 결산기말에 영(零)으로 만드는 마감분개(closing entry)이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잔액을 산출하여 원장에서 차기로 이월하며 분개하지 않는다. 박영진가 장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정에 더 이상 전기할 수 있는 여백이 없거나, 결산 시에 잔액을 계산하여 이월할 때는 하록(下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인삼포 계정인 윤공렬·박재영·설기동 계정에는 1898년 6월 20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 일종의 마감분개를 실시하여 새로 마련한 지면의 같은 계정으로 이월하였다.

六月廿日  
 \_\_\_\_\_ 尹兢烈朴在永薛基東選上樂村密種圃會計邊  
 并文四萬一千八百五十六兩三錢三分 上  
 \_\_\_\_\_ 又選給同圃入條會計邊并文一萬九千三百  
 二兩九錢二分 下  
 \_\_\_\_\_ 又揔次<sup>14)</sup>同圃會計印戊戌七月本文二萬二  
 千五百五十三兩四錢一分 下

이 계정은 락촌밀종포에 대한 수지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6월 20(廿)일 현재 차변 잔액이 41,856.33량이고, 대변 잔액이 19,302.92량으로서 이월액이 22,553.42량이다. 새로이 마련된 계정으로 이월하는 분개로서 먼저 차변 잔액만큼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환상.....상'으로 첫 줄에 분개하고, 대변 잔액만큼 지급한 것처럼 둘째 줄에 '환급.....하'로 분개하여 차변과 대변의 잔액을 제거한 다음, 여백을 새로 마련한 같은 명칭의 계정 차변에 차액인 이월액을 '봉차.....하'로 분개한 것이 셋째 줄이다. 회계변병(會計邊并)은 이 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었다는 용어이다.<sup>15)</sup>

위의 두 분개 예는 입금과 출금을 의미하는 분개 부호 상(上)과 하(下)가 입금금이 아닌 다른 용례로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기 때문에 현금 잔고와 대차평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계연도 중 원장의 여백이 부족하여 마감 이월하는 분개는 거액의 투자가 소요되는 삼포 관련 회계에만 보인다. 금융거래의 만기연장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주로 거액이 개제된 경우에 분개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의 도입은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거나 위험이 큰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에 중간에 점검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분개는 6년 근을 수확할 목적으로 인삼을 배배하던 관우6근포를 6년이 되기 전에 매각하여 1898년 11월 15일에 이 계정을 청산하고 매각이익을 배분한 거래이다. 11월 15일 현재 관우6근포 계정의 차변 잔액은 20,972.17량이고 대변 잔액은 매각대금이 40,655량이다. 이 인삼포는 박영진가와 박노현, 설기동, 황용수가 공동으로 경영하던 인삼포이다. 아래 분개의 첫째 줄은 차변 잔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환상....상), 둘째 줄은 대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환급.....하)처럼 각각 분개하여 관우6근포 계정을 마감하였다. 차액인 매각이익 19,682.83량을 박영진가 및 공동경영자 3명에게 각각 4,800량씩 합계 19,200량을 배분한 것이 셋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의 분개이다. 이조(利條)는 박영진가 이익을 기록하는 계정이고 박노현, 설기동, 왕용수는 각각 부채를 나타내는 인명계정이다.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이익만큼 갚아야 할 부채가 증가한 것(입.....상)으로 기록하였다. 공하조(公下條) 계정은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 설정하였는데

14) 차(揔次)는 이두 표기이며 자산을 의미하고 '받자'로 읽는다.  
 15) 삼포경영 관련 이자 문제는 본 논문의 제6장에서 설명한다.

이익 중 일부를 박영진가에 별도로 배분한 금액을 기록하였다. 공하조 482.83량은 박영진가가 공동경영에서 담당한 자금과 회계 관리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보인다. 공하조는 1898 회계연도에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소유자 지분으로 보고되었으나 1899 회계연도에는 회계집작초에 직접 수익으로 인식되었다.

十一月十五日  
 \_\_\_\_\_ 朴魯賢選上館隅六根圍會計邊并上文二萬九百七十二兩一錢七分 上  
 \_\_\_\_\_ 又選給會計給文四萬六百五十五兩 下  
 \_\_\_\_\_ 利條入館隅六根圍利一衿<sup>16)</sup>戊戌十一月本文四千八百兩 上  
 \_\_\_\_\_ 朴魯賢親入館隅六根圍利一衿同本文四千八百兩 上  
 \_\_\_\_\_ 薛基東親入館隅六根圍利一衿同本文四千八百兩 上  
 \_\_\_\_\_ 王龍洙親入館隅六根圍利一衿同本文四千八百兩 上  
 \_\_\_\_\_ 公下條入館隅六根會計時文四百八十二兩八錢三分 上

계정과목을 폐쇄하거나,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서 보고해온 계정과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정을 폐쇄하는 분개를 실시하는 대신에 계정의 끝에 행잉(行剩)<sup>17)</sup>으로 1898 회계연도부터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 <표 3>은 행잉 처리한 1899 회계연도 말 종삼이조(種蔘利條) 계정이다. 종삼이조 계정은 인삼 관련 이익을 종합하는 통제계정이다. 1898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이 상편이래(上片移來)로 4,176.89량이다. 1899 회계연도 중에 락촌구밀포(樂村舊密圃) 등 4개 인삼포에서 이익이 발생했고 합계금액인 본합(本合)으로 34,509.74량이다. 1989년까지는 이 금액을 주회계에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1899년 9월 15일 기해년 결산에서 종삼이조 계정으로 주회계에 보고하지 않고 회계집작초에 직접 반영한다는 의미가 행잉(行剩)이다. 자산계정이 행잉되면 그 잔액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어 오늘날의 전액 대손과 같이 취급되었다.

<표 3> 종삼이조(種蔘利條)

단위 : 량

연도	월	일	내역	금액
入 戊戌(1898)	9월	15일	上片移來戊戌九月本文	4,176.89
		30일	樂村舊密圃利一衿十月本文 德男洞圃利一衿十月本文	3,800.00 2,732.85
	11월	15일	館隅六根圍利一衿十一月本文	4,800.00
己亥(1899)	3월	15일	薛基東種蔘圃利一衿十一月本文 本合文	19,000.00 34,509.74
			己亥九月十五日 行剩	

16) 일금(一衿)에서 금(衿)은 옷깃을 의미하나 박영진가 장부에서는 이익을 배분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호전(戶典) 세법(上) 편에 본금(本衿)을 이두로 본것으로 읽고 '원래의 뭍'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159권 재용고(財用考)의 전화(錢貨) 편에 1902년 최초로 중앙은행을 설립하면서 주주를 금주(衿主)로, 주권을 금권(衿卷)으로 표시하여 금(衿)의 뜻이 오늘날의 지분에 해당하는 뭍임을 알 수 있다. 즉 일금은 이두 표기로서 '한것'으로 읽고 뜻은 '한 뭍'이다.  
 17) 행잉(行剩)은 국어사전과 이두사전에도 없는 용어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개송도치부 장부에서도 이 용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행잉의 한자 의미는 '남은 것을 옮긴다'는 뜻이다.

#### IV. 계정과목의 설정과 전기

박영진가 장부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의 하나는 사업 분야별로 또는 상품별로 이익을 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독립된 계정에 기록하여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소유지분으로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계정들은 해당 사업의 부침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였다. <표 4>는 1894 회계연도부터 1899 회계연도의 주회계에 나타난 이익 관련 계정들이다. 1894년의 백목조는 포목 매매이익을, 염좌여는 소금 매매이익을, 경환태가는 서울에서 발행된 어음을 받고 대여해준 금액을 중개인을 통해 회수할 때 수취한 수입이자를 기록한 계정이다. 경환을 제외한 일반 금융거래의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순이자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 회계집작초에 표시하였다.

염좌여 계정은 1895년 백목조 계정에 통합되었는데 1895년 중 소금의 추가구입이 없고 재고 매출만 있었다. 1897 회계연도에는 연백조가와 종삼이조 계정이 추가되었다. 연백조가 계정은 벼농장 경영의 이익을 계산하는 계정이고, 종삼<sup>18)</sup>이조 계정은 공동

으로 경영한 삼포의 매각에 따른 이익과 손실 중에서 박영진가 몫으로 배분된 금액을 기록한 계정이다. 1898 회계연도에는 경환태가와 백목조를 한 계정으로 통합하고, 이조김홍렬과 공하조 계정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공하조 계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조김홍렬 계정은 박영진가와 김홍렬이 공동으로 소금 미곡 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박영진가 몫을 기록한 계정이다. 그러나 1899 회계연도에는 종삼이조와 이조김홍렬 계정을 폐쇄하고 대신에 이들 계정의 누적 금액을 행잉(行剩)으로 처리하여 회계집작초에 직접 반영하였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을 통합한 계정인 상품별 매득(買得) 계정의 변동을 요약한 것이 다음 <표 5>이다. 매득백목계정은 양목매득으로 명칭이 변했지만 여전히 포목 매매를 기록하는 계정이므로 1898 회계연도에 재고가 영이 됨으로써 주회계에서 사라졌다. 매득은(銀) 계정은 1897년 결산 시에 잔액 1,528.20량을 행잉으로 처리하여 회계집작초에 반영하고 계정은 폐쇄되었다. 용염은 황해도 용진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유추된다. 전답은 매득전답 계정으로 분개하여 전기했다가 결산 시에 소유주 인출로 회계집작초에 반영하였다. 백삼 거래는 빈번하지 않았고 매매

<표 4> 회계연도별 이익관련 계정

회계연도	계정과목 명칭
1894	백목조(白木條), 염좌여(鹽座餘), 경환태가(京換駄價)
1895	백목조, 경환태가
1896	백목조, 경환태가
1897	백목조, 경환태가, 종삼이조(種蔘利條), 연백조가(延白租價)
1898	경환태가백목조, 종삼이조, 연백조가, 이조김홍렬(利條金弘烈), 공하조(公下條)
1899	경환태가백목조, 연백조가

18) 종삼(種蔘)은 인삼 씨앗이 아니고 파종 후 1년 된 인삼이다. 인삼 재배는 먼저 씨앗을 파종하여 1년 동안 키운 후 이를 채굴하여 다른 삼포에 이식한다. 종삼을 이식한 삼포가 본포(本圃)이다. 이식한 후 5년 지나 채굴하면 6년근 인삼이다.

〈표 5〉 매득(買得)계정의 변동

회계연도	매득계정 종류
1894	백목(白木), 은(銀), 옹염(甕鹽), 전답(田畝)
1895	백목, 은, 옹염, 전답, 백삼(白蔘)
1896	양목(洋木), 은
1897	양목, 백삼
1898	백삼
1899	-

이익도 남기지 않다가 1898 회계연도 결산 시에 잔액 765량을 행잉으로 처리하여 회계집작초에 가산하였다. 1899 회계연도에는 주회계에 매득계정이 없다.

허성관(2015)은 박영진가 장부에서 소유주와의 거래를 기록하는 신책(新冊) 계정의 잔액이 대차 어는 변에 남느냐에 따라 부채 또는 자산으로 보고됨을 확인하였다. 1896 회계연도에는 부채계정이던 진영원(秦永源)이 자산계정으로 주회계에 보고되었다. 즉, 진영원과는 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 해의 거래액은 차변 합계가 29,737.75량, 대변 합계가 19,591.75량으로 그 차액이 자산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897 회계연도부터는 다시 잔액이 대변에 남아 부채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모든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 일관성 있게 기록되는 오늘날의 회계와는 차이가 있다.

박영진가 장부에는 1899 회계연도까지도 통제계정인 차입금, 대여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계정이 없고 해당 계정의 각 인명계좌로 직접 분개하고 전기하였다. 일반관리비는 전도한 후 정산된 금액만큼 소유지지분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다가 1898 회계연도부터 발곡가사(鉢谷家舍) 계정을 설정하여 전도의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개송도치부법에서 비용계정은 공용질(公用秩) 가사질(家舍秩) 또는 비용질(費用秩)로 나타난다(현병주 1916).

아래 〈표 6〉은 발곡가사(鉢谷家舍) 계정을 요약한 것이다. 이 계정은 일종의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자산계정이다. 이 계정 개설 후 1898년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38,000량을 지급하고 이 중 15,847.25량을 가교가사(佳橋家舍) 계정으로 대체(對替)한 금액을 이래(移來)로 표시하고, 이 금액을 제(除)한 잔액 19,152.75량을 1899 회계연도 결

〈표 6〉 발곡가사 (鉢谷家舍)

1898년(戊戌)7월8일취명천先給文3,000량
(중략)
8월27일200량本合文38,000량 內
內 1898년9월15일上片佳橋家舍價座移來文15,847.25량 除 餘棒次文19,152.75량
1899년(己亥)9월15일周會計時 行剩

〈표 7〉 공자동(公子洞)

入 上片移來丁酉九月本文二千一百五十兩五分  
十二月十九日正租一石價文七十兩  
戊戌閏三月十三日德南洞田稅一百五十兩  
本合文二千三百七十兩五分  
戊戌八月至邊合文三百三十八兩八錢八分  
本邊合文二千七百八兩九錢三分 下錄

산에서 행잉으로 처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여봉차(餘捧次)는 차변 잔액임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내(內)는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부호이다. 이 금액은 선급비용이지만 발곡택(鉢谷宅)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지분 인출로 볼 수도 있다.

박영진가 장부에서 부채와 자본 관련 계정을 모은 타급장책(他給帳冊)에는 회계연도 중에 거래가 없고 결산 때 미지급이자만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해서 매년 이월하는 계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별비조(別費條), 팔월택(八月宅), 복만택(福萬宅), 우세조(牛稅條), 박재도(朴在燾), 내택(內宅), 공자동(公子洞), 승하동(承霞洞) 등이다. 이들 계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자 계산에서 적용된 이자율은 연 15%로서 자기자본비용과 같았다. 따라서 이들 계정은 장기차입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소유지 지분일 가능성도 있다.

위 〈표 7〉은 1898년 9월 15일 현재 급차질인 공자동 계정이다. 상편이래(上片移來)인 전기이월액 2,150.05량에 버(正租) 한 섬 가액 70량과 덕남동 소재 전답의 임대료 150량을 합하여 연도말 원금 합계인 본합(本合)이 2,370.50량이다. 여기에 1898년 무술년 8월까지(戊戌八月至) 지급이자 합계 338.88량<sup>19)</sup>을 더한 것이 결산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인 본

변합(本邊合) 2,708.93량으로 이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하록(下錄)으로 표시되어 있다. 1898년에 처음으로 공자동의 잔액으로 별도로 전답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공자동에 가산한 것이다. 이 내용은 여유지금이 있으나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친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달라고 자금을 맡긴 구체적인 예로서 1960년대까지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박영진가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금을 맡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실례로서 신용을 기본으로 한 개성상인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투자신탁과 유사한 경우이다.

동일한 성격을 지닌 공자동과 승하동 계정은 1899년에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되었다. 이 통합은 박영진가 장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승하동과 공자동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경우에도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별개의 인명 계정을 통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한사람이 자신의 자금을 나누어서 박영진가에 투자했거나 두 사람이 모두 박영진가의 가까운 친지일 가능성이 크다. 자금 거래가 명백하고 거래가 빈번한 계정과목을 제외하고 기말에 지급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주는 계정들은 결

19) 전기이월 2,150.05량에 대한 15%의 1년 이자 322.51량에 70량과 150량이 공자동에 가산된 일자로부터 8월 말까지 이들 금액 이자  $70 \times 15\% \times (8/12) = 7$ 량과  $150 \times 15\% \times (5/12) = 9.37$ 량을 더하면 이자 합계 338.88량이다.

국 소유자 지분인지 장기대여금인지 분명하지 않다. 허성관(201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영진가 장부에는 1894 회계연도 이후에도 같은 날짜에 대차 관계가 소멸된 분개의 전기를 생략하는 사례가 있었고, 인접한 기간에 대차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전기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897 회계연도 중에 전기가 생략된 분개가 27개였다. 같은 금액이 대변과 차변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대차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들 분개는 자금거래에 관련된 분개로서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음지(音紙)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계정 과목도 설정하지 않았고 7개의 관련 분개 모두가 전기되지 않았다. 전기했다더라도 대·차합계가 같은 금액이어서 물론 기말잔액에는 영향이 없다.

## V. 삼포회계(蔘圃會計)

산에서 자생하는 인삼이 산삼(山蔘), 재배하는 인삼이 가삼(家蔘) 또는 양삼(養蔘)이다. 한국인삼사(韓國人蔘史, 2002)에 의하면 조선 현종 2년(1661년) 송도 사람 박두간이 양직묘삼농법(養直苗蔘農法)<sup>20)</sup>을 개발하였고, 영조 원년(1724년) 역시 송도 사람 박유철이 해가림(일복, 日覆) 방식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후 인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인삼재배는 순조 때인 1810년대에 들어 보편화 되고 송도가 인삼의 중심지가 되었다. 삼포에서 채굴한 인삼이 수삼(水蔘)이다. 6년근 수삼 중에서 품질이 좋은 것을 증기로 찌서 익힌(증포, 蒸包) 후 말린 것을 포삼(包蔘)으로 부르다가 고종대에 들어 용어가 홍삼(紅蔘)으로 정착되었다.<sup>21)</sup> 5년근 이하와 품질이 떨어지는 6년근 수삼을 건조시킨 것이 백삼이다. 홍삼 제조공장인 증포소(蒸包所)가 순조 때 국영기관으로 설립되었고 1996년 7월 인삼산업법이 제정될 때까지 홍삼은 국가 전매품이었다.

박영진가는 설기동과 함께 1896년 9월 13일 노득권(魯得權)으로부터 증삼포 210칸(間)<sup>22)</sup>을 17,640량과 소개비 290량을 지급하여 매수함으로써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기간이 1899년 9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삼포 개설 후 6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6년근 인삼을 수확하고 이를 정부에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삼포 회계는 삼포 조성에 관련된 원가회계, 6년근 미만인 수삼의 채굴과 판매, 조성된 삼포의 매수와 매각 및 매각손익의 처리이다. 다음 <표 8>은 박영진가와 설기동이 경영한 증삼포의 매수, 관리, 매각 및 채굴의 회계처리를 요약한 것이다. 이 삼포에

20) 묘삼(苗蔘)은 종삼(種蔘)의 다른 이름이다. 양직묘삼농법(養直苗蔘農法)은 인삼씨를 파종하여 계속 키우지 않고 1년근 묘삼을 이식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키운 다음 채굴하는 재배법이다.

21) 조선조 인조 이후 중국에 가는 사신들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삼을 휴대했다. 사신 1인 당 휴대할 수 있는 기본 한도가 80근이었는데 10근씩 포장(包裝)하여 8 꾸러미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포삼(包蔘)이란 용어가 유래하였고 포삼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포장된 인삼이 홍삼이었기 때문에 고종 때 들어 홍삼이란 용어로 일반화 되었다. 사신이 휴대하는 홍삼이 대 중국 홍삼 수출이었다. 1678년(숙종 4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신 수는 당상관이 2명, 당하관이 22명이었고, 당상관은 120근 당하관은 80근으로 총 2,000근을 휴대했다. 당시 포삼 1근이 은 25량, 은 1량은 쌀 10말이었다. 쌀 1섬을 15말로 계산하면 사신단이 가지고간 홍삼이 쌀 33,333섬에 해당하는 어마 어마한 규모이다(한국인삼사, 2002, 176쪽). 1810년(순조 10년)부터 사신이 포삼을 직접 휴대하는 대신 상인들에게 맡기고 대신 세금을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했다.

22) 칸(間)은 넓이를 재는 기본단위이다. 건물의 경우 1칸은 가로 세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6x6자이다. 인삼포의 경우에 증삼포는 1칸이 7x7자, 정식 삼포인 본포(本圃)는 1칸이 6x6자이다. 따라서 1칸은 통상 1평이다.

서 박영진가가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고 설기동이 재배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삼포는 본포가 아닌 종삼포로서 이미 과종된 종삼포를 4차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총 563칸 규모이다. 매수한 종삼포들은 같은 곳이 아닌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것이며 회계상 통합한 것이다. 총 매수대금 49,354량을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최초 매수 후 다음 해 3월 12일 종삼의 채굴이 끝날 때까지 지출한 비용 합계가 1,598.15량으로 역시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비용은 소개비, 자재비, 임금, 채삼(採蔘)비 및 고사비로 구성되어 있다. 매수대금과 관리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이다. 1896년 10월 24일 김성렬로부터 칸 당 75량에 매수한 50칸을 1897년 2월 22일 칸 당 105량에 매각하였다. 나머지 513칸에서 1987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채굴한 인삼이 573차(次)였다. 차(次)는 모든 수삼(水蔘)의 종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게 단위로서 1차는 750g이다. 합계 384.75kg을 채굴하여 58,737.73량의 수익을 실현하였다. 당연히 묘삼을 품질별로

분류하여 차 당 다른 단가로 판매했다. 1897년 3월 12일에 차변 합계에 대해서는 '還上.....上'으로 대변 합계에 대해서는 '還給.....下'로 분개하여 계정을 마감하였다. 대변합계 64,154.55량에서 차변합계 54,414.69량을 차감한 9,739.86량이 이익이다. 이익을 50%씩 나누어 4,869.93량을 설기동에 대한 부채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삼포 관련 이익을 기록하는 종삼이조(種蔘利條) 계정에서 인식하였다.

〈표 8〉은 삼포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삼포를 매수할 때 지급한 소개료는 매수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하고 삼포 매각과 종삼 매출 소개비는 대금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했다. 종삼포 50칸을 칸 당 105량에 매각하고 소개비 100량을 뺀 5,150량만 대변에 기록했다. 종삼 21차를 차 당 141량에 팔고 소개비 21량을 뺀 2,940량만 기록했다. 허성관(20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의 매입 부대비용은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판매비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기록하는 회계원칙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설기동(薛基東)

단위 : 량

차 변		대 변	
매수 96. 9.12	210칸×84량	매각 97. 2.22	50칸×105량
	17,640.00	채굴 97. 3. 4	21차×141량
	10.10		12 64차×130량
	173칸×88량		330차×115량
	15,224.00		15차× 70량
	10.18		101차× 65량
	130칸×98량		32차× 57량
	12,740.00		기타 10차
	10.24		97. 3.12까지 비용 환입
	50칸×75량		지급이자
	3,750.00		
97. 3.12까지 비용 합계	1,598.15	합 계	64,154.55
97. 2까지 이자 합계	3,462.54	합 계	54,414.69
합 계	54,414.69		

\* 대변 합계 64,154.55량은 각 항목의 합계보다 308.50량이 적다. 308.50량은 종삼포 매각과 종삼 판매 관련 소개비로서 이를 차감한 순액으로 분개하고 전기한 결과이다.

이 설기동 계정은 외상장책(外上帳冊)에 자산 계정의 하나인 인명계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계정과목 명칭으로 표시된 인명은 도주(都主)의 이름이다. 도주는 오늘날의 합명 또는 합자회사와 비슷한 도중(都中)의 대표이다. 인명 외에 일기와 원장에 삼포의 유형, 생산될 인삼의 종류, 및 삼포 소재지 등을 병기하여 삼포를 구분하고 있다. 삼포 유형으로는 종삼을 생산하는 종삼포, 인삼 씨앗을 생산하는 종포(種圃) 및 본포로 구분했다. 인삼의 종류로는 재배 예정 햇수에 따라 4근삼 5근삼 6근삼 등으로, 삼포 소재지로는 사직동 석벽동 등이다. 예를 들면, 박노현이 도주인 사직동사근포(社稷洞四根圃)는 왕용수, 김남형, 손계중과 박영진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삼포계정으로서 4년근 생산이 목표인 삼포이다.

각 도중별로 계정을 설정한 것은 오늘날의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을 실시한 것이다. 각 삼포계정은 재공품(work-in-process)과 매출계정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칸 당 매매가가 변동하고, 칸 당 재배비용도 계산할 수 있으며, 칸 당 매출액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단위(cost unit)는 칸이다. 칸 당 원가와 수익성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했을 것이다. Johnson·Kaplan(1987)에 의하면 오늘날의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과 유사한 방법으로 최초로 제조원가를 계산한 것은 1815년 경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면방직 공장이다. 개별원가계산은 19세기 후반 카네기 철강회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당 원가개념도 19세기 철도산업에서 시작되었다. 박영진가 장부는 서양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이 19

세기 말 조선에 개별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원가단위 개념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이다.

〈표 8〉의 대변에서 종삼 330차를 채굴하여 1차 당 115량씩 37,950량에 판매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방영진가가 운영하는 본포 중의 하나인 락촌밀종포(樂村密種圃)에 이식한 것이다. 즉, 외부 판매가 아니고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이다. 내부거래의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오늘날 관리회계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사내이전가격(internal transfer pricing)<sup>23)</sup> 문제이다. 이체되는 종삼은 본포의 입장에서는 반제품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 종삼포 경영자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락촌밀종포 경영자들의 이익은 줄어든다. 현대 관리회계에서 반제품에 종삼처럼 외부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적이다. 박영진가에서도 시장가격으로 이전하였다. 락촌밀종포 계정의 차변에는 1897년 3월12일자로 종삼 330차를 차당 115량에 37,950량을 지급하여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외부에서 구입한 단가도 115량이었다. 19세기말 조선에서 현대 경제학이 증명하는 시장가격이라는 최적의 기준을 사내이전가격으로 적용한 것이다.

위 〈표 8〉은 설기동 삼포에 약 6개월 동안 54,414.69량을 투자하여 9,739.86량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수익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5.8%로서 아주 높다. 그러나 이 수익률은 1897년 2월까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 3,462.54량을 비용으로 가산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 이자는 앞서 설명한 자기자본비용으로서 종삼포 매수대금과 비용에 대하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sup>24)</sup> 이는 종삼포 이익이 총

23) 사내이전가격에 대해서는 Ray H. Garrison, Eric W. Noreen, Peter C. Brewer의 Managerial Accounting, 13th edition, McGraw-Hill, 2010 등 관리회계 교과서 참조.

24) 각 매수대금과 비용지급에 대해 이자를 계산할 때 기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15%에 평균 5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비슷한 금액이 산출된다.

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본시장회계(capital market-based accounting)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과이익(abnormal income)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포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박영진가가 극도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삼포 경영에서 도중을 개설할 때 체결한 계약서가 없어 이익 분배 등 제반 조건을 명시적으로 알 수는 없다. 장부에는 설기동 삼포뿐만 아니라 이익을 실현한 모든 삼포에서 균등하게 참가자에게 이익을 배분했다.<sup>25)</sup> 박영진가가 분담한 역할은 자금과 회계로 장부에 나타났고, 여타 참가자들은 삼포의 관리와 재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장부에 나타난 설기동 삼포 계정의 기록 내용이 박영진가 지분만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 균등하게 이익을 배분한 사실은 자본의 가치와 삼포의 관리와 재배기술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본 중심의 경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박영진가에서 1896년 9월 13일 최초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이후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포 수는 1897 회계연도 말의 8개에서 1899

회계연도 말에는 18개로 늘어났다. 삼포를 개설한 첫 해에 삼포자산 규모는 161,986.81량으로 전체 자산의 59.7%에 달했다. 1899 회계연도 말에는 삼포자산의 이 비중이 80.2%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삼포의 비약적인 확대는 사업전망이 밝아 박영진가가 적극적으로 삼포에 투자한 결과이겠지만 당시 조선의 인삼행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 보내던 사신이 폐지됨으로써 홍삼 관련 폐단의 온상이었던 사역원(司譯院)도 폐지되었다. 1897년 7월에 인삼행정이 탁지부(度支部)로 일원화 되고 이어 9월에 포삼규칙(包蔘規則)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시기는 박영진가가 본격적으로 삼포를 경영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규칙에 따라 정부는 개성에 포삼공사(包蔘公社)를 설립하여 인삼 재배와 채굴 및 홍삼 제조에 엄격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관련 세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이 규칙에서 홍삼의 연간 제조 한도를 16,000근에서 45,000근으로 확대함으로써 홍삼 원료인 6년근 수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다. 결국 인삼 재배자와 홍삼 제조자들은 세금만 내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한국인삼사, 2002, 183쪽)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박영진가가 인삼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박영진가의 삼포 사업 추이

	삼포 수(개)	총자산(량)	삼포자산(량)	삼포비중(%)
1897. 9. 15	8	271,522.95	161,986.81	59.7
1898. 9. 15	14	469,283.46	276,806.24	60.0
1899. 9. 15	18	448,958.76	362,158.33	80.2

25) 도중을 결성하여 사업한 결과 발생한 손실도 균등하게 분담했다. 인삼을 재배하기 전인 1895년에 박재영 윤공렬과 박영진가가 백삼 도중을 결성하여 사업한 결과 10,737.91량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을 3인이 3,579.30량씩 균등하게 분담했다. 도중의 결성은 동업을 의미한다.

## VI. 결산과 재무제표

허성관(20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박영진가의 1894년 회계집작초는 오늘날의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합한 것이다. 회계연도가 거듭되면서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계집작초의 형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 <표 10>은 본 연구 분석 대상 기간의 마지막 회계연도인 1899 회계연도의 세로로 쓴 회계집작초를 읽기 쉽게 가로 쓰기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의 첫 줄 4,176.89량은 삼포 관련 이익으로 1898 회계연도 말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보고된 금액으로 이번 회계연도로 이월된 것인데 회계집작초에 보고한 것이다. 둘째 줄 락촌밀포리(樂村密圃利)부터 다섯 째 줄 설기동삼포리(薛基東蔘圃利)까지는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각 삼포 관련이익이다. 즉,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중삼이조 계정을 주회계에 보고하지 않고 행잉(行剩)으로 처리하여 회계집작초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김홍렬리(金弘烈利) 12,750량은 박영진가와 김홍렬이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박영진가의 몫

<표 10> 회계집작초(會計斟酌抄) (1898년 9월16일부터 1899년 9월15일까지)

種蔘利文四千一百七十六兩八錢九分
樂村舊密圃利文三千八百兩
德男洞圃利文二千七百三十二兩八錢五分
館隅六根圃利文四千八百兩
薛基東種蔘利文一萬九千兩
金弘烈利兩年致文一萬二千七百五十兩
公下餘文二千七百六十六兩三錢八分
未詳文四百十八兩九錢八分
<b>入 合文五萬四百四十五兩一錢 內</b>
各人邊給九百八十一兩六錢三分
熊峙貸去條文九百四十兩一錢
廉義圭貸去條文三百五十一兩五錢
紫加乙背子俱吐手價文五百兩
白蔘價條文一千八百九十四兩
鉢谷家舍一座價中佳橋家價 除 實文一萬九千一百五十二兩七錢五分
鉢谷用處文一萬二千二百六十一兩三錢
昨年周會計文一萬一千七百二十五兩三錢九分
<b>出 合文四萬七千八百六兩六錢七分 除</b>
<b>餘捧次周會計文二千六百三十八兩四錢三分</b>

\* 마지막 줄 捧次는 탈초본(脫草本) 장부에 給次로 표시되어 있으나 入이 出보다 많아 봉차가 옳다. 급차는 탈초 오류이다.

50%이다. 이 중 1898 회계연도 이익 6,500량은 주회계에 보고되었으나 1899 회계연도 이익 6,250량과 함께<sup>26)</sup> 회계집착초에 보고된 것이다. 공하(公下)는 앞서 설명하였다. 미상(未詳) 418.98량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익이다. 이 결과 이익 합계가 50,445.10량이다. 이 중에서 종삼이 4,176.89량, 김홍렬이 중 6,500량, 공하여 중 198.82량 합계 10,875.71량은 1898 회계연도에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인 주회계에 보고하였으나 1899 회계연도에 행잉 처리되어 회계집착초로 넘어온 것이다.

각인변급(各人邊給) 981.63량은 금융거래에서 지급이자자 수입이자자를 초과한 금액이다. 만약 수입이자자 많다면 각인변봉(各人邊捧)이고 입(入) 항목의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웅치(熊峙), 염의규(廉義圭), 자가을(紫加乙), 백삼조(白蔘條)는 자산계정으로서 그 잔액이 앞에서 설명한 행잉(行剩)으로 처리된 것이다. 더 이상 거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계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오늘날 회계의 대손처럼 처리하여 계정을 마감하면서 그 금액만큼 이익을 감소시켜 소유지 지분을 줄인 것이다.

발곡가사(鉢谷家舍) 19,152.75량은 소유주가 인출한 금액이다. 발곡용처(鉢谷用處) 12,261.30량은 허성관(20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로 신책(新冊)계정에 전도한 금액을 정산한 것이다. 1899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발곡용처와 발곡가사를 명확하게 구분했는데 이는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의 비용과 소유주 개인의 비용을 구분한 것으로 진화한 것이다. 작년 주회계(昨年周會計) 11,725.39량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입(入) 합계에서 출(出) 합계 47,806.67량을 차감한

2,638.43량이 1899 회계연도 말 현재 잉여금으로 여봉차餘捧次)로 표시되어 있다. 만약 입이 출보다 적으면 여급차(餘給次)로 표시될 것이다.

박영진가의 회계집착초는 점차 진화되어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과 앞서 논의한 관련 계정들을 고려하여 1899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오늘날의 형식으로 작성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삼포 4개에서 1899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이익이 30,332.85량이다. 김홍렬과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6,250량, 연백조가 7,711.36량, 공하여 2,567.56량도 모두 1899 회계연도에 실현된 것이다. 총수익이 47,280.75량이다. 손실과 비용으로는 행잉 처리된 자산 3,686.50량, 일반관리비 12,261.30량, 순이자비용 981.64량으로 총합계가 16,929.43량이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1899 회계연도에 30,351.32량이다. 이처럼 박영진가 장부는 추가적인 특별한 노력 없이 해당 금액의 귀속연도를 식별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오늘날의 손익계산서로 전환될 수 있는 복식부기이다.

박영진가는 결산 시 계속해서 사업 분야 별로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금융업에서도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계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순이자 손익은 회계집착초에 각인변급(各人邊給) 또는 각인변봉(各人邊捧) 한 줄로 나타나 있고, 이를 계산한 보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자율은 분개에 기록하고 이자금액은 원장에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였다. 결산 시 미지급이자자는 인식하였지만 미수이자자는 일부분만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자 인식은 수익비용 대응의

26) 김홍렬리양년치(金弘烈利兩年致)에서 양년치는 1898, 1899 회계연도에 실현된 이익을 의미한다. 치(致)는 한문 뜻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우리말 치이다. 박영진가의 장부에서는 같은 용례로 致와 置를 혼용하고 있다.

〈표 11〉 손익계산서  
(1898년 9월16일부터 1899년 9월15일까지)

수익	삼포이익	락촌구밀포이	3,800.00		
		덕남동포이	2,732.85		
		관우육근포이	4,800.00		
		설기동중삼이	<u>19,000.00</u>	30,332.85	
		김홍렬이			6,250.00
		연백조가			7,711.36
		공하여			2,567.56
		미상			<u>418.98</u>
					<u>47,280.75</u>
	손실과 비용	행잉(行剩)자산	웅치	940.10	
염의규			351.50		
자가을배자			500.00		
백삼가			<u>1,894.00</u>	3,686.50	
		발곡용처			12,261.30
		순이자 비용			<u>981.63</u>
					<u>(16,929.43)</u>
				30,351.32	
당기순이익					

원칙(matching principle)이 부분적으로 지켜진 것이다. 삼포의 해가림 시설에 사용된 재목은 내용년 수가 1년이 넘지만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교체할 때 원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박영진가의 장부는 부분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진가 장부의 지급이자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삼포 투자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가산하였다. 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초과이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의 원칙에 따라 결산하면 30,351.32량보다 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다음 〈표 12〉는 위 회계집작초와 1898 회계연도 결산에서 관련 계정을 식별하여 작성한 1899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 1898 회계연도

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1,752.39량에다 1898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이지만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고 주회계에 독립계정으로 보고된 종삼이부터 연백조가까지 금액을 가산한 다음, 여기에 과거부터 이익잉여금이지만 독립된 계정으로 기록되어온 경환태가백목조를 더하면 1899 회계연도 기초 이익잉여금이다. 1999 회계연도 중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소유주 인출인 발곡가사가를 차감하면 1899 회계연도 말 이익잉여금은 46,364.96량이다.

박영진가 장부가 복식부기이지만 채부제표의 보고 형식은 현대회계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위의 회계집작초와 〈표 11〉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의 원천별로 손익을 산

〈표 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898년 9월16일부터 1899년 9월15일까지)

단위 : 량

기초이익잉여금	98 회계집작초		(11,725.39)	
가산 :	種蔘利	4,176.89		
	公下餘	198.82		
	金弘烈利	6,500.00		
	延白租價	21,083.00		
	京換駄價白木條	14,933.04	46,891.75	35,166.39
당기순이익				30,351.32
鉢谷家舍價	(소유주 인출)			(19,152.75)
기말이익잉여금				46,364.96

출하여 독립계정에 기록을 유지했다. 소유자지분인 주회계 발곡택(鉢谷宅) 계정의 잔액 58,153.48량에다 위에서 계산한 기말 이익잉여금 46,364.96량을 더한 104,518.44량이 1899년 말 현재 박영진가의 소유자지분이다.

## Ⅶ. 결론

본 연구는 허성관(2015)이 제시한 사개송도치부법에 관한 첫 후속 연구이다. 박영진가의 장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분개되어 있다. 대차가 같은 날에 소멸된 분개를 전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이 가능하도록 원장에 분개가 전기되어 있다. 그러나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지급이자, 수입이자 등의 통제계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각 인명계정의 잔액을 합산해야 각 통제계정의 잔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은 분석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비용계정도 항목별로 설정하지 않고 전도한 후 기말에 정산하는 방식도 분석 기간 중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유주 개인의 비용과 회계실체의 비용을 1899 회계연도부터 구분하였다. 손익은 원천별로 계산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하나인 회계집작초는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합한 보고서로 진화되었다. 삼포는 개별원가계산을 실시했다. 삼포에서 발생한 손익을 삼포 도중(都中)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 자체에서 재배한 묘삼을 본포(本圃)에 이식할 때 사내이전가격으로 시장가격을 적용했다. 자기 자본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에 반영하였다. 오늘날의 회계와 비교하여 차이점들이 있으나 복식부기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박영진가의 주회계책(周會計冊)을 오늘날의 재무제표 보고양식으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다.<sup>27)</sup>

27) 박영진가 장부와 현대회계와의 당기순이익 금액 차이까지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박영진가 장부의 거래를 오늘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개하고 전기하여 결산해 볼 수 있다. 매년 회계집작초에 미상(未詳)으로 보고된 손실 또는 이익은 부분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기술한 연구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허성관(2015)에서 박영진가의 1894 회계연도 장부가 복식부기임이 밝혀졌고, 이후 1899년까지 계속해서 복식부기 장부임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박영진가의 복식부기 장부에는 서양식 복식부기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박영진가의 장부는 사개송도치부법이 한국고유의 복식부기임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본 연구는 박영진가 장부의 이익정보를 활용할 경우 오늘날의 개념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개송도치부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진가의 사개송도치부 장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박영진가는 1887년에 10,000량을 투자하여 개업하였다. 이후 1891년에 31,360량, 1893년에 10,000량을 각각 추가로 투자하여 총투자금액은 51,360량이다. 1893년부터 189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매입한 전답가(田畝價) 28,660량을 소유주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인출로 회계처리하였다. 현금으로 소유주가 인출한 금액은 1899 회계연도 말까지 29,152.75량이다. 1899 회계연도 말 현재 소유자 지분이 104,518.44량이다. 전답가 현금인출과 1899 회계연도 말 소유자 지분을 합한 금액에서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110,971.19량이 개업 후 13년에 걸쳐 증식된 순자산으로서 연평균 17% 정도 증가한 셈이다. 물론 이 숫자는 자기자본비용 공제 후 증가율이다. 박영진가는 1902년부터 인삼 외에 다시 포목 소금 등 상품매매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장부에 나타난다. 따라서 박영진가 장부에 나타난 사업 전체 및 분야별 수익성과 거래

내용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 국권을 상실해 가던 격동기 조선의 기업 성장을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박영진가의 삼포는 개설 초기 삼포들이다. 수삼을 채굴한 경우도 1년생 수삼으로 본포 이식용 묘삼이었다. 이외 삼포 관련 이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재배 중인 삼포 자체의 매각 이익이었다. 삼포 경영은 궁극적으로 6년근 인삼을 생산해서 홍삼제조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포회계는 6년근 수삼을 채굴할 때까지 계속 살펴보아야 그 전모를 파악하게 되는 셈이다. 회계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1912년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사개송도치부법의 삼포회계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97년에 시행된 포삼규칙(包蔘規則)에 따라 6년근 수삼은 전량 정부의 수매에 응하게 되었고 허가를 받아 인삼을 재배하고 채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세금만 납부하면 자유롭게 인삼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삼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도 회계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진가 장부의 일기장에는 1887년 8월15일부터 1912년 4월15일까지 26년간의 거래가 분개되어 있고 각 분개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이자율<sup>28)</sup>과 판매단가 및 구입단가 등 거래의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 경제 변수들의 26년 동안 변화를 정리하면 시계열(time series)이 된다. 전성호(2011)가 밝힌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국가 전체가 격동기로서 위험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대단히 안정적이었다. 종삼포 1칸의 가격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달 사이에 84량에서 98량으로 올

28) 박영진가 장부에서 대출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월 이자율이지만 대출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대부분 대출기간 전체의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출기간이 3개월의 이자율을 호산(胡算)으로 卍六式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3개월에 3.75%라는 의미이다. 월 이자율은 1.25%이다.

랐다. 포목 중 풍유목 1필의 가격이 1895년 11월 19일 124.4량에서 1896년 8월11일에는 133량으로 상승했다. 삼포회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과 월급도 나타나 있다. 장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물가와 임금자료는 그 어떤 자료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 물가 관련 연구는 경제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진가 장부의 모든 거래는 전체 기간 동안 1량=10전, 1전=10분의 통일된 화폐단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화폐경제가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기 1633년(인조11년)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최초로 발행되었고 숙종(재위기간 1674-1720)대에 전국적으로 이 화폐가 통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원군 집권 이후 1866년(고종3년) 당백전(當百錢)<sup>29)</sup>을 발행하고 1883년(고종20년)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자 물가가 급등하여 화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1876년 개항 전후에도 상평통보(常平通寶)를 화폐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량, 전, 분 단위는 박영진가 장부와 일치한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을 제정하여 은본위제도를 도입하여 1량=10전=100분으로 하고 5량 은화가 본위 화폐였다. 1901년 칙령(勅令) 제4호 화폐조례(貨幣條例)에 따라 금본위제도로 이행하여 1환=100전으로 순금 2分=1환이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화폐제도에 통합되었다(허성관, 2015). 박영진가 장부의 기간 동안 이처럼 화폐제도가 달라지고 명칭도 량에서 환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량(兩)이라는 동일한 화폐단위로 1912년까지 계속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화폐경제사의 중요한 연구주제일 것이다.

개성상인들의 근검절약 정신과 신용을 중시하는 사업정신은 전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기호(1986)는 개성상인들이 명심한 경구로서 이불가이독식(利不可以獨食) 이막대어절용(利莫大於節用) 총명불여순필(聰明不如純筆) 선치부후출급(先置簿後出給)을 소개하였다. 이익은 혼자서 독차지 할 수 없으며, 절약하는 것이 이익을 남기는데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기록을 이길 수 없으며, 먼저 장부에 기록한 후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현대적 의미는 이익은 나누어야 하고, 원가절감이 가장 중요하며, 회계장부를 철저히 기록하여 유지하라는 것이다. 박영진가 장부는 개성상인들의 이러한 정신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이다. 장부에 나타난 금리 수준이 대부분 15%로서 시장 수준보다 훨씬 낮고, 삼포도중 이익을 투자액에 관계없이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투명한 회계기록을 중시한 구체적인 예는 허성관(2011)과 Jun et al (2013)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장부의 표지와 첫 쪽에 표시한 '천은상길진(天恩上吉辰)' 또는 '상길진(上吉辰)'의 의미에 잘 표현되어 있다.<sup>30)</sup> 이러한 예는 개성상인들의 경영윤리의 표현으로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오늘날 우리 경제의 현실을 성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9) 상평통보는 당일전(當一錢)과 당이전(當二錢) 두 종류가 있었는데 대원군 집권 후 재정의 궁핍을 해소하고자 고액 화폐인 당오전과 당백전을 주조했다. 이 결과 물가가 급등하여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박영진가는 사업을 개시한 첫 날인 1887년 8월15일 자본금으로 당오전 6,153.84량을 납입하였고, 1893년 9월15일에도 당오전 18,816량을 납입하였다.

30) 1899년 9월13일 경찰인 당시 순검에게 50량을 주고 설기동양포(薛基東養圃) 계정에 분개하였다. 당시 인삼 절도가 극심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개성에 별도의 경찰관서를 설치하여 삼포 순찰을 강화했다. 이 지급액은 일종의 뇌물일 수밖에 없는데도 분명하게 회계처리 했다.

박영진가의 금융거래는 현금 또는 어음거래<sup>31)</sup>이다.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운 거래는 전혀 없다. 금리수준도 당시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것이 확실하다. 선이지를 댄 경우도 전혀 없고 이자는 모두 후급이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대손<sup>32)</sup>이 된 경우도 전혀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과 비교하여 박영진가의 장부에 나타난 금융거래 관행은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개성상인들 간에 이러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 배경을 연구하면 우리의 전통 경제사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기호(1986), **송도치부법사개문서의 개요**. 동광인쇄소.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80), **국역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윤근호(1984), **한국회계사연구**. 한국연구원.  
 전성호(2011), “개성 시변제도 연구 - 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거래 분석(1887-1900).” **대동문화연구** 75집 151-200.

정약용저 다산연구회 역주(1979) **목민심서**. 창작과비평사.  
 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2002), **한국인삼사**.  
 허성관(2011) “한국 전통회계 기록의 책임성과 진실성의 역사적 기원.” 전성호(편), **한국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II**, 민속원.  
 허성관((2014), “한국 전통회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회계저널**, 23(1), 61-89.  
 허성관(2015), “박영진가家的 19세기 사개송도치부 장부 회계순환 구조,” **회계저널**, 24(2), 85-116.  
 현병주(1916), **실용자수 송도사개치부법 전**. 덕흥서림.  
 Ray H. Garrison, Eric W. Noreen, and Peter C. Brewer(2010), *Managerial Accounting*. 13th edition. McGraw-Hill.  
 Jun, Seong-Ho, James E. Lewis, and Sung Kwan Huh(2013) “Korean Double-entry Merchant Accounts from Kaesong City(1786-1892)”.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2), 105-147.  
 Johnson, H. Thomas and Robert S. Kaplan(1987), *Relevance Lost - The Rise and Fall of Management Accounting*.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achusetts.

31) 어음을 한자로 보통 於攄으로 쓰지만 현병주(1916)에는 어험(魚驗)으로 표기되어 있다. 박영진가 장부에는 대부분 음(音) 한 글자로 표기했으나 뜻과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음(音)으로 표기한 이유는 말(소리)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신용 중심 경제활동을 표상한 것일 수도 있다.  
 32) 대손(貸損)을 우리 전통회계에서는 난봉(難捧) 또는 잉존(仍存)으로 표기한다. 난봉은 받기 곤란해진 채권이라는 의미이고 잉존은 이두로서 '지즈'로 읽는다.

## On the Evolution of Accounting Methods in the 19<sup>th</sup> Century Korean Double-Entry Bookkeeping Records of the Park Youngjin Family

Sungkwan Huh\*

### Abstract

The recently discovered Gaeseong merchant's bookkeeping book(Park's record), Korean Listed Cultural Heritage No. 587, was confirmed to be an example of double-entry bookkeeping by Jun, Lewis, and Huh(2013) and Huh(2015). This result settled the dispute of whether or not the traditional Korean accounting of the *Sagae Songdo Chibubeob* is double-entry bookkeeping. This paper, an extension of Huh(2015), examines the evolution of accounting methods of Park's record from accounting year 1894 to 1899 with complete data.

The format of its basic journal entries, as analyzed in Huh(2015), did not change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Although there were no cash payments or receipts indicated, the expressions *sang*(上) and *ha*(下) were used in journal entries to carry forward balances or to close accounts. Extension of maturity in financing was journalized explicitly. These entries were made only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s of large amount, and appears to be utilized as a step to check the progress of major transactions

Compared to Huh(2015),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procedure for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during the period. Specific rearrangements of accounts were observed. The balances of asset accounts without transactions for several accounting periods were closed and treated as if they were bad debt expenses. Advance payments to the owner were separated into owner's withdrawal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to be adjusted at the end of the accounting year. The *hoegae jimjagcho*, a combined repor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 in

---

\* Research fellow of the Hangaram Institute for History and Culture Former minister of the Ministry of Interior, First Author

1894, evolved into the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for the financial and ginseng field businesses in 1899. Meanwhile, net incomes from merchandising were reported directly on the *juhoegae*, the balance sheet.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Park's record had been influenced by western double-entry bookkeeping. It is a form of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had been used consistently by the Gaeseong merchant without western influence, and can be easily translated into modern financial statements.

In accounting for the management of ginseng fields which were the major business of the Park family from 1897, payments for the ginseng fields were recognized as investments and reported on the *juhoegae* as assets until the fields were disposed of. For the investments in and revenues from the ginseng fields, cost of capital was computed and added to the debit and credit of each field account, respectively. Market price was used as the internal transfer price when nursery ginseng was transplanted within the proprietorship. Ginseng fields were managed by partnerships and net incomes from fields were distributed equally to partners. These practices of ginseng field managemen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history of management and economics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accounting, *Sagae Songdo Chibubeob*, Double-entry bookkeeping record of Park Youngjin family

- 
- 저자 허성관은 동아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Buffalo)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시립대(Baruch)와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계학연구 경영학연구 등에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장관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을 지냈다. 정년퇴임 후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우리 전통회계인 사계송도치부법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